東大新聞

基均 明鍾 道 李 孫 人兼人 發行 編輯 印刷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電話(3)3130—9 (每週金曜日發行) 六個月分·200원

豫算執行全面承認

64年度 總學生會

負債償還으로 赤字 總二百四十餘萬원

65年度 十四代議員會에서는 25日 總會를 열고 64年度一年間 學生會의 決算報告 및 執行承認의 件을 審議하였다. 二, 四一七, 七一八 二, 四一七, 七一八 會보면 歲入二, 三九三, ○○○원에 비해 四一七, 七一八원으로 二四, 七一八원의 赤字를 냈다. 議長 李湘雨君의 司會로 열린 本會議에서는 總務部長 劉昇千(農4)君의 決算報告와 執行承認에 對한 提案說明이있은 다음 承認에들어 갔는데 學藝部와 總務部의 예산 執行에 對한 質疑가 있었다. 이에 對하여 總務部長으로부터 充分한 答辯이 있은다음 上程된 案件關係로 一括通過를 보았는데 이날 承認된 學生會의 64年度 예산 執行을 보면 佛敎硏究部를 비롯하여 예비費, 代議員會, 體育장려비 等이 赤字를 냈으며 總務部와 辯論部는 예산案과 執行이 차질이 없으며 그외의 部署에서는 黑字를 나타냈다.

學藝部를 비롯해서 5個 部署에서는 黑字를 나타냈는데 이는 總務部에 있어서 二四, 七一八원의 赤字를 낸것은 去年度 學生會의 負債(學校當局에서 借入된것) 一○○, ○○○원을 償還한데 있다. 한편 이날 總會에서 承認된 64年度 學生會의 執行에 산출보면 다음과 같다.

◇總歲入 二, 三九三, ○○○원

◇總歲出 二, 四一七, 七一八원

細目別歲出 二四, 七一八원

▲總務部=四八, 四○三원 ▲學藝部=三三八, 五四○원 ▲體育部=一七二, 四二○원 ▲UN部=二八, ○五○원 ▲指導部=二七, ○二五원 ▲辯論部=六二, ○○○원 ▲體武部=四二, ○五○원 ▲女學生=三二, 一六五원 ▲佛硏部=三七, 八六○원 ▲農硏部=八九, 一○七원 ▲代議員=一○八, 三○五원 ▲備用費=八五, 五○○원 ▲예비費=八四五, 四一三원 ▲장려金=四○○, 四三○원 ▲償還金=一○○, ○○○원

31名參加申請

本社「교지」원 바둑大會 後援

棋道를 通하여 敎授및校職員 相互間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後援으로 열리는 『第一回 校職員 바둑대회』가 10月3日午前 9時부터 敎授室에서 열린다 本校開校以來 처음 열리는 바둑大會에는 檀明基總務處長을 비롯하여 曺在鎭敎務處長、權允祿法政大學長 등 31명의 棋士, 棋友들이 參加를 申請하여 珍妙한 無我의 觀戰로 盛況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꾸준한努力의結實 25日、迫加卒業式盛了

本校64年度 追加卒業式및 大學院秋期碩士學位수여식이 지난25日午後2時 本校中講堂에서 檀明基總務處長, 孫晨石財團理事長등 學內人士와學父兄, 親知, 在學生등 內外來賓客들이 多數參席한가운데 盛大히 거행되었다.

三歸依로시작된 이날식은 국민의례에이어 檀總務處長으로부터 卒業生二百七名과 碩士10名에게 學位記授與가 수여된 다음 總務部長, 孫晨石理事長告辭, 葛歲三청등의順으로 進行되었다.

이날 刻苦4年餘의 보람을 안고 거치른세파로出航하는「뉴·페이스」들을 축하하는자리에서 檀總務處長은 訓辭를通해 그들의4年餘에걸친 불굴의努力과 鬪志를 致賀하면서 『國家와 社會 더나아가서 全世界의 위대한 요구에 副應하기위해 이순간부터라도 일초반구라도 경솔한 思考방식과 生活態度를 지양해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孫理事長은 『世界史와 祖國의 偉大한 歷史는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크게 左右된다』고 强調하면서 大東大人의 理念, 佛陀의 자비로운 精神을 이어받아 世界史의 原動力이 돼 줄것을 당부하는 告辭가있었다. 이날 式이끝나자 歡喜와 情은 母校를 떠나는 아쉬움이 엇갈린 錯雜한 표정들의 卒業生들은 四角帽와 검은 「가운」의 端正한 차림으로 敎授, 在學生들이 힘차게 부르는 우렁찬 校歌齊창을 들으며 4年餘를 通한 學窓生活을 마쳤다. 紀念式이 끝나자 校庭에서는 이들 榮光의卒業을 祝賀하는 親客들이卒業生들에게 꽃다발과 선物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光景이 펼쳐 졌고 紀念촬영을 하는 「캠퍼스」의 늦은한때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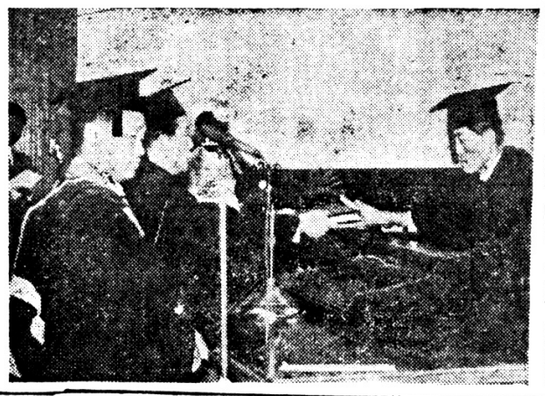
除幕서두는聖像

青銅鑄造段階 들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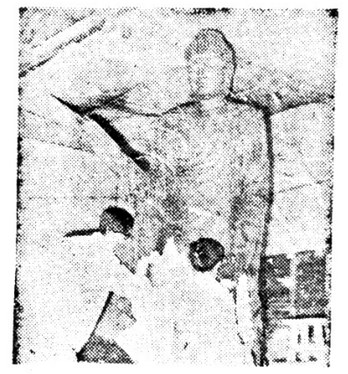
11月5日 開校紀念日期하여 除幕을 서둘러 오는 聖像建立은 그동안 聖像建立委員會와 彫刻家 金泳仲氏의 緊密한 協助도 지난달5月에 建立基金15萬원의 彫像製作에 着手하여 粘土로 彫像을 끝내고 石膏原型을 完了. 青銅鑄造에 들어갔다 한편 聖像建立基金을 마련하기爲하여聖像建立委員會에서는 各界로부터 賛助金을 募金하고있는데 지난달까지 學界佛敎界人士들의 積極協助를 하고있다.

그런데 이번에 建立될聖像은 現代造形美術의 藝術的感覺을 살린 眞立銅像으로 多少律動을 加味하여 佛陀의 慶福美를 表現하고 素朴한 가운데서 佛陀의 救恕스러운 精神을 表現하려고 努力했다한다.

總製作費150萬원을 들여 建立을 서둘고있는 聖像은 臺에서 頭上까지의 높이가7尺9寸으로 校庭한복판에 세워 全東大人의 象徵이 될 것이다.



【學位를 授與하는 광경】



【石膏原形作業 뜨고있다】

放送室 아나

李君등 4명合格

李英求(佛—)金東明(國—)夏在德(史—)池昇淑(國—)鄭等 四名은 26日放送室에서 지난번施行한 「아나운서」試驗에合格하였다.

言一週今

노력지 사람은 지꺼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볼테엘>

社說

言語活動은 人格의 表現이다

말은 마음의 表現이다. 말한마디로 천량빚을 갚는다는 말도 결국 진실은 남을 움직일 수있다는 말일께다.

戰爭과 生活의 시달림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험악하고 거칠어진 우리들의 말씨는 죽여버린다는 몹쓰리처지고 끔찍한말을 예사로 씹어대는게되었다.

전에는 무슨말을 하다가 정 수를 리거나 화가 나며는 비로소 욕이나 왔는데 요즘은 우선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게 일수다.

무어 화가나서 그런것도 아니요, 수를려서 그런것도 아니라 예사로운 말이 욕인것이며 심지어는 반가워서 하는 말까지 욕으로 비롯되는것이니 이야말로 말같지않은말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말같지 않은 말과 말못할 사람들이 판을치는 世上이라 그런지는몰라도 이르기를 民族의 番號이요, 來日의 祖國의 主人이라는學生들 까지 이 사람스럽지 못하고 잘됨성스럽지 못한 나쁜 말들을 신나게 주어섬기는 데는 나뭇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識字憂患 이라드니 그래도 배운것은 있다고 잘못을 안다는것을 自認하면서도 잘못을 저질르는데는 귓구멍이 맥힐지경이다.

例를 落書에 드려보기로 하자. 學生들이 사용하는 즉간에 갖출적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壁面을 裝飾하고있는 落書들이 제구실을 한 落書들은 한둘이요 落書는 文化人의 수치라는동 落書를 나름하는 落書가 더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것을 볼때에 苦笑를 禁할수가없다. 남이말 잘못한것을기껏 訓戒한다는 소리가 「입마 말조심해」하는식의욕지거리로 시작되는데야 더말할 나위없다.

거지말 하지말라는 공갈치지말라는 말로 代替하게되고 욕을욕으로 듣지 않게된 세상이라서 그런지는몰라도 民族의 番號이요, 來日의 主人이라는學生들 까지 이 사람스럽지 못하고 잘됨성스럽지 못한 나쁜 말들을 신나게 주어섬기는데는 나뭇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識字憂患 이라드니 그래도 배운것은 있다고 잘못을 안다는것을 自認하면서도 잘못을 저질르는데는 귓구멍이 맥힐지경이다.

例를 落書에 드려보기로 하자. 學生들이 사용하는 즉간에 갖출적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壁面을 裝飾하고있는 落書들이 제구실을 한 落書들은 한둘이요 落書는 文化人의 수치라는동 落書를 나름하는 落書가 더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것을 볼때에 苦笑를 禁할수가없다. 남이말 잘못한것을기껏 訓戒한다는 소리가 「입마 말조심해」하는식의욕지거리로 시작되는데야 더말할 나위없다.

거지말 하지말라는 공갈치지말라는 말로 代替하게되고 욕을욕으로 듣지 않게된 세상이라서 그런지는몰라도 民族의 番號이요, 來日의 主人이라는學生들 까지 이 사람스럽지 못하고 잘됨성스럽지 못한 나쁜 말들을 신나게 주어섬기는데는 나뭇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전에는 무슨말을 하다가 정 수를 리거나 화가 나며는 비로소 욕이나 왔는데 요즘은 우선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게 일수다.

무어 화가나서 그런것도 아니요, 수를려서 그런것도 아니라 예사로운 말이 욕인것이며 심지어는 반가워서 하는 말까지 욕으로 비롯되는것이니 이야말로 말같지않은말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말같지 않은 말과 말못할 사람들이 판을치는 世上이라 그런지는몰라도 이르기를

大學址의 史蹟을 더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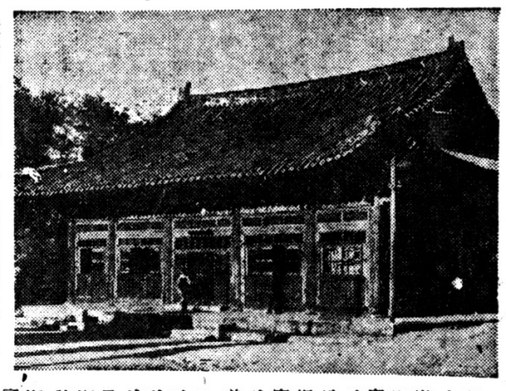
<1> 相貞禹

崇政殿

元來慶熙宮의正殿

一九二六年日帝가옮겨

歷代王朝와因緣깊어



지금 東國大學校 第一 體育館이며 軍武部 道場으로 쓰고있는 古色짙은 李朝後期建築의 典型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것이 『崇政殿』이다.

崇政殿이라는 현판이正面에 붙어있어 자세히살펴보아야 알수있는정도이다. 이 崇政殿은 一九二六年에 日本 臨濟宗所屬인 조계사에서 사서 本堂으로 쓰고있다가 八·一五解放以後부터 東國大學의 所有가된것이다.

사람들이 「새문안대궐」이라부르는 慶熙宮의 正殿이였든것이다. 지금 서울 中高等學校자리가 바로 慶熙宮자리다.

元來 慶熙宮은 宣祖大王의 다섯째 왕자인定遠君이 (뒤에 仁祖께서 元宗이라 追尊하였음)의 私邸로 이든것을 光海君八年(一六一六年)에 塞門洞에 王氣가 감돈다는 風說을 光海君이 들고 定遠君의 私邸를 빼앗어宮을 新築한 것이다.

여러記錄들을 살펴보면 慶熙宮의 始役은 光海君 八年으로 되어있으나 工事를 끝낸것은 훨신뒤에 일로 되어 있다.

光海君日記九年六月 甲辰條에보면 「塞門洞에 新宮을 建立할것을 議論하였다. 性智가 仁王山下에 新闕을 既下하였는데 術人 金日龍이 또離宮을 塞門洞에 建立할 것을 請하였다. 即 定遠君의 舊第에 王氣가 있음을들고 議論이있고, 이어서 光海君九年七月에 塞門洞民家 數百채를 철거하고 宮城을 築하였다. 殿閣을 營造한內容은 光海君日記九年十一月條에서 볼수 있다.

「傳하여 曰 殿閣의上梁文을 매번 上梁할때 臨筆하여 지음은 군지 한것이 없으니 다시 整理하였다가 正月望後에는 上梁토록 都監에 분부하여 日 月條에서 볼수 있다.

처음에는 慶德宮이라하였으나 그뒤 英國三十大 德宗의 殿號가 仁王山下 仁王山下 人家 數千을 撤去하였으며 材木을 徵發하고 僧軍을 調發하였다」라고 하였음을 보아 光海君日記와 多少의 差異를보여주고있다.

그뒤 仁祖大王이 反正하고 光海君을 追放하면서 光海君이 새로지은 仁慶宮과 慈壽宮은 허러버리고 慶熙宮만은 自己父親의(定遠君) 舊邸라하여 헐지않았든것이다.

慶熙宮의 構造는 西面에 五門이있었으니 正門인東쪽門을 興化門이라하였고 南門을 開豫門, 西門은 崇善門이라하였고, 北門을 武德門, 南門左便에있는것을 興元門이라하였다. 이興元門과 開豫門은 宝玉 朝臣들이 出入하는專用門이고 東쪽正門인 興化門은 臣下들이 出入하였고 西門 崇善門은 軍人들이 有事時에만 出入하고 平素에는 閉門하였든것이다.

이 慶熙宮城의 中央 西地에 올겨진 由緒깊은 光海君이 定遠君의 私邸를 빼앗어 宮을 新築한 것이다. 지금의 崇政殿을 알려면 慶熙宮의 正殿이기는하나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처음에는 慶德宮이라하였으나 그뒤 英國三十大 德宗의 殿號가 붙어서 慶德宮이라 불리어졌다. 하늘이 아름답다고 말했을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新聞記事를 읽은 기억이있다. 이 記事를보고 나는 苦笑를 禁하지 못하였다. 이 땅위에 무엇 칭찬할것이 없었길래 하늘을 가르쳤으랴!

프랑스의 南部 地中海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보다 못하였을까? 북극 울타리고 동죽 사이에는 이 慶熙宮城의 中央 西地에 올겨진 由緒깊은 光海君이 定遠君의 私邸를 빼앗어 宮을 新築한 것이다. 하나의 궁궐 또는 離宮이라 말할수있다.

洪城을 떠난以後 다시는 그 행방을 찾지않았음으로 나라 末年에 洪城에서의 太妻所生이라는 사람이 弘濟洞에 올라와살면서, 韓龍雲을 찾아왔을 때도 그가 그들을 對面하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중기의 一部가된다.

유점륜에서 講院生活을 마친 그는, 中年을 東萊 梵魚寺에서 보내게된다. 이 梵魚寺와의 인연은그 末年에까지 두터워져 그가 困境에있을때그 의 糊口를 살피게까지된 것이다. 하나의 궁궐 또는 離宮이라 말할수있다.

이 慶熙宮城의 中央 西地에 올겨진 由緒깊은 光海君이 定遠君의 私邸를 빼앗어 宮을 新築한 것이다. 지금의 崇政殿을 알려면 慶熙宮의 正殿이기는하나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처음에는 慶德宮이라하였으나 그뒤 英國三十大 德宗의 殿號가 붙어서 慶德宮이라 불리어졌다. 하늘이 아름답다고 말했을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新聞記事를 읽은 기억이있다. 이 記事를보고 나는 苦笑를 禁하지 못하였다. 이 땅위에 무엇 칭찬할것이 없었길래 하늘을 가르쳤으랴!

프랑스의 南部 地中海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보다 못하였을까? 북극 울타리고 동죽 사이에는 이 慶熙宮城의 中央 西地에 올겨진 由緒깊은 光海君이 定遠君의 私邸를 빼앗어 宮을 新築한 것이다. 지금의 崇政殿을 알려면 慶熙宮의 正殿이기는하나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처음에는 慶德宮이라하였으나 그뒤 英國三十大 德宗의 殿號가 붙어서 慶德宮이라 불리어졌다. 하늘이 아름답다고 말했을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新聞記事를 읽은 기억이있다. 이 記事를보고 나는 苦笑를 禁하지 못하였다. 이 땅위에 무엇 칭찬할것이 없었길래 하늘을 가르쳤으랴!

프랑스의 南部 地中海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보다 못하였을까? 북극 울타리고 동죽 사이에는 이 慶熙宮城의 中央 西地에 올겨진 由緒깊은 光海君이 定遠君의 私邸를 빼앗어 宮을 新築한 것이다. 지금의 崇政殿을 알려면 慶熙宮의 正殿이기는하나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처음에는 慶德宮이라하였으나 그뒤 英國三十大 德宗의 殿號가 붙어서 慶德宮이라 불리어졌다. 하늘이 아름답다고 말했을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新聞記事를 읽은 기억이있다. 이 記事를보고 나는 苦笑를 禁하지 못하였다. 이 땅위에 무엇 칭찬할것이 없었길래 하늘을 가르쳤으랴!

프랑스의 南部 地中海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보다 못하였을까? 북극 울타리고 동죽 사이에는

東國文學星座記

(2)

韓龍雲과講院의 詩人들 (下)

◇……章湖……◇

<韓龍雲·崔吉善敎授>

韓龍雲이 僧侶가된 직접적인 동기는 알길이없다. 嶺里 에서의 若干의 行蹟과, 漢城법관까지 流浪해간 사실에서가 그의資質을 加算해보면, 도피적인心算에서의 일이 아니라는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후의 그의生涯를 더듬어보아도 그는 僧侶라기보다 志士였던듯 그가 意志的이고 積極的인 姿勢로서 그길을 스스로 擇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결코 山中 절간에 숨어 살사람은아니었던 것이다. 하나의 결별 또는 離身이라 말할수있다.

佛敎界의 碩學들과 사귀게된것도이무렵부터다. 佛敎社가 發刊하던 「佛敎」誌도 權相老先生이 편집하던것을 九七號부터그가 맡아하게되고 佛敎維持會, 佛敎大典과 十玄談 注解도 著述하는한편 세 교수가 사는 城北洞의 尋牛莊을 지었다.

그는 獨立을 한해남긴 一九四四年에 이 尋牛莊에서 에순나섯을 一期로 파란많은 一生을걷우었다.

오늘(一九六四年九月二日 時에順天 仙岩寺의 昇山 學校와 梵魚寺의講院을나온 후도 계속 佛敎를 研究하여 日本 「고마자와」大學에서 佛敎學과 東洋文學을 修學하고 귀국하여 佛經을 講義하였다.

佛敎系統의著述만도 起信論講義, 法華經講義, 佛敎宗派分立論 등이있다.

그는 東京留學時節에, 中央佛專十回로 一九四〇年에 卒業한 張禪鳳等과 함께 綜合誌 「金剛저」를 發刊하고 거기에 時調作品 本名은 龍濟로, 中央佛敎專門講院과 中央佛敎研究院을 마쳤으나 그는 그 전에 이미寺籍에있어 少時에順天 仙岩寺의 昇山學校와 梵魚寺의講院을나온 것이다.

그는 東京留學時節에, 中央佛專十回로 一九四〇年에 卒業한 張禪鳳等과 함께 綜合誌 「金剛저」를 發刊하고 거기에 時調作品 本名은 龍濟로, 中央佛敎專門講院과 中央佛敎研究院을 마쳤으나 그는 그 전에 이미寺籍에있어 少時에順天 仙岩寺의 昇山學校와 梵魚寺의講院을나온 것이다.

그는 東京留學時節에, 中央佛專十回로 一九四〇年에 卒業한 張禪鳳等과 함께 綜合誌 「金剛저」를 發刊하고 거기에 時調作品 本名은 龍濟로, 中央佛敎專門講院과 中央佛敎研究院을 마쳤으나 그는 그 전에 이미寺籍에있어 少時에順天 仙岩寺의 昇山學校와 梵魚寺의講院을나온 후도 계속 佛敎를 研究하여 日本 「고마자와」大學에서 佛敎學과 東洋文學을 修學하고 귀국하여 佛經을 講義하였다.

佛敎系統의著述만도 起信論講義, 法華經講義, 佛敎宗派分立論 등이있

책속에 있는길 읽어야 나의길

讀書週間座談會

◇日 時・九月二四日오전十一時
◇場 所・本校中央圖書館
◇參席者(敬稱略・無順)
檀殷鶴(圖書館長) 孫道성(東大新聞社主幹)
金熙坤(農林大敎授) 宋 赫(東大新聞社編輯局長)
洪庭植(師敎大敎授) 朴昌碩(醫學生會會長・行三)
李東林(文理大敎授) 李勝子(女學生會會長・農三)
千惠鳳(圖書館司書課長) 兪文子(女學生會副會長・食二)
權혁仁(圖書館庶務課長) 安榮煥(經營科四年)
◇司會・黃大午(圖書館閱覽課長)
◇記錄・兪龍煥(本社記者)

▲司會=6년도 讀書週間행사를 맞는 오늘 이렇게 어려분을 모시고 座談會를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趙=바쁘신중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매년 개최되는 이러한 座談會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偉大한부분들의 전기에 의하면 그들의 거개가 多讀家였다고 합니다。역시 독서가 偉大한 이들의 素材가 되는모양이지요。언젠가 어느 잡지에서보니、위대한 지도자가 되기위해서는 만권의 독서、만리의 여행、만인의 사람을 알아야한다고 했더군요。지도자중 權力만 갖고 民衆을 다스리려면역시 결함이 오나봅니다。저야 이제 백권의 책도 未讀인니다만、아직 독서에 대한 熱望만은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대단히 부끄럽습니다。평소어려분께서 이점에 대해많은 생각을 갖으셨을테니 우리 후진들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司會=본론에 앞서、먼저 인류생활에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金熙坤선생 어디 말씀해 주십시요。

▲金=저야 뭐 自然科學이 전공이니!。

▲李東=글세요、책이란 신인과 타인의 정신을계승、타인의 장점을 본받기 위한것이 아닐까요、換言하면、시대적 文化를 계승하고 또을 받아、자기의風考를 충실히하는데 의의가있는것이아닐까하는데요。

▲千=요는 他人의 지식、경험이란 독서로 섭취할수 없다는거지요?

▲洪=독서의 필요성이란 너무상식화되고 잘 알려진 문제니 논의 꺼리가못되고、오늘 본 좌담회에서는독서의 태도、대학생활과 독서와의관계를 좀 더상론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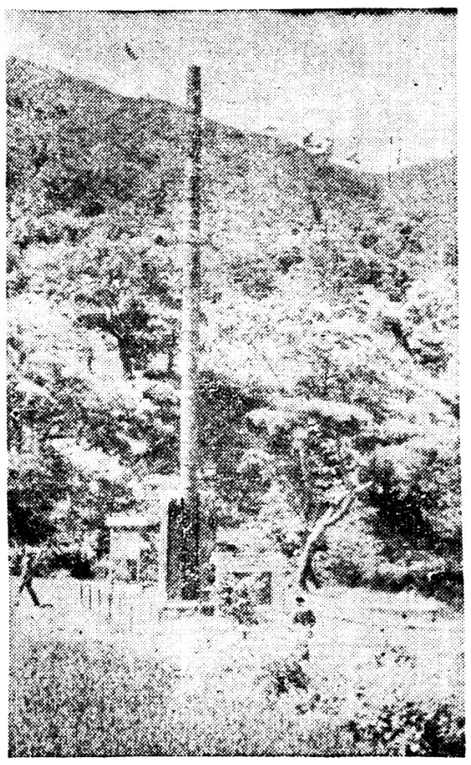
▲李東=대학에서의독서권장은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을 독서하는 것은 절독이 좋겠지요。특히 전공부분의 독서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연단한인、노트하는 방법이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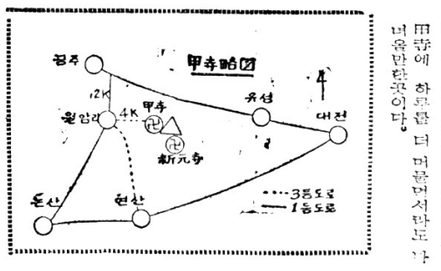
▲趙=저희는 다독을해야할지 사간에 시험공부를 해야했고、강수성에민감思春期를 영어 수학을 공부 하느라 책에대한 공포감이붙어 버렸지요 책을읽을줄은기회를잃어버린 셈입니다。

▲洪=그말은 타당치않아요。마치 쓰고남는 돈을 저금하는 생각이나 갚지않을까요?남는시간에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強調을 重修하여 規模가 커졌다는 古刹로 鐵甘竿支柱(寶物 256)金剛淨居(寶物 250)의 두 寶物과 千斤梵鍾과 月印千江之曲 木刻板의 寺寶를갖고 있다。

높이十五米인 鐵甘竿支柱는 淸州市所在 龍頭寺鐵甘竿과 더불어 貴重한遺物로써 現在 二十四折의 圓形鐵筒으로 되어있으며 羅末麗初作으로 推定되는 높이 二、五米의浮屠는 基壇、火舍石、蓮花 모두 八角形이며 獅子、叅雲、四天王等의 彫刻이 섬세・우아하며、太祖建築樣式인 蓮花의 精巧함은 경탄을 禁할수없다。

이절에서 連天峰을 넘어 東南쪽으로 내려가면 甲寺라는 古刹이 있는데 산길로 한참하긴 하지만 約二十里의 거리이고、羅末부터 天馬名山의하나인 由岳(鷄龍山)의山神을 모셔놓은 山王堂이 이 甲寺境內에 있으므로、甲寺에 하루를 더 머물면서 한도 가 너울만한곳이다。





高山古刹을 찾아 ②

甲寺

忠淸第一의 高山이요、名山인 鷄龍山의 서쪽기슭에 자리잡은 甲寺는 둘레의山들이 강과로고여센 東鶴寺와같은 광활한 사내다을 갖은 것지만、海拔 八百五十米를넘는동쪽의 連大峰과 비로봉을 뒷 背景으로 西向한 甲寺는 아늑하면서도 輕快하며 또한 특직한 雄壯의 面象을 던져준다。

무엇보담도 月谷里에서이절로 들어가는 길에、橋門까지 약二、四百米에 뻗친 森林속의 길은 이절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속세로부터 어이게하는데 足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橋門에 들어가서 이전과 大寂殿을 頂端하는 계곡에 이르르면 누구나 그 自然의 아름다움과 神秘에 휘싸여 感情이 들이 아니요 하나인것을 느끼게 되리라。

이절은 大田과의 사이에 험한 鶴龍山이 가로막혀 교통은 東鶴寺에비해 불편하다고도 할수있지만、그러나 大田에서 運山을 經由하여 이전까지、그리고 조치원에서 公州읍을 經由하여 이전까지 各 두차례씩의 「뻐스」便이 있어교통이불편하다는 말을 합부로사용할수는 없게 되었다。

한편 東鶴寺에서「오뉘탑」이 있는 淸凉寺지붕거쳐、비로봉을 넘어 이절로 내려오는 산길도있어 鶴龍山을 征服하면서 登山과 觀光을 兼하는「코―스」를 擇할도 좋을것이다。

이절은 신라 興興王十七年(556)에 眞明大師가 重建하였고 뒤에 의상대사가 道場을 設開하고 法堂을 重修하여 規模가 커졌다는 古刹로 鐵甘竿支柱(寶物 256)金剛淨居(寶物 250)의 두 寶物과 千斤梵鍾과 月印千江之曲 木刻板의 寺寶를갖고 있다。

높이十五米인 鐵甘竿支柱는 淸州市所在 龍頭寺鐵甘竿과 더불어 貴重한遺物로써 現在 二十四折의 圓形鐵筒으로 되어있으며 羅末麗初作으로 推定되는 높이 二、五米의浮屠는 基壇、火舍石、蓮花 모두 八角形이며 獅子、叅雲、四天王等의 彫刻이 섬세・우아하며、太祖建築樣式인 蓮花의 精巧함은 경탄을 禁할수없다。

이절에서 連天峰을 넘어 東南쪽으로 내려가면 甲寺라는 古刹이 있는데 산길로 한참하긴 하지만 約二十里의 거리이고、羅末부터 天馬名山의하나인 由岳(鷄龍山)의山神을 모셔놓은 山王堂이 이 甲寺境內에 있으므로、甲寺에 하루를 더 머물면서 한도 가 너울만한곳이다。

自然의 神秘에 싸여

―月印千江之曲木刻板등寺寶―

登山과 觀光 兼한 코스로도

佛敎文化史上 梵唄의 位置

洪潤植

1、梵唄의뜻

古代原始信仰에서 行祭祭天儀式 或은 기도儀式에서 絶對神에對한 讚嘆과 祈願 音樂을노래와 춤으로서 表現한 事實을 찾아볼수 있고 音樂의 起源도 亦是 여기서 發生하는것으로 보는것도 無理가 아닐것 같다。옛 우리祖上들도 東國 舞天 迎 賜等의 儀式에서 歌舞音曲을 수반하여 神에게 드리는 無限한感謝와 後日의 無事함을 기도 하였던 것을 알수있거니와 이렇게 音樂을 믿仰과 결부되어 發展하였으며 宗敎가 있는곳에 音樂이 없을수없고 音樂도 한 宗敎와 떨어 不可分의 位置에 있었던것같다。

三國時代에 우리나라에 佛敎가 들어온以後 새로운宗敎的 感覺에依한 새로운 宗敎音樂이 發生하지않을수 없었으니 在來信仰의 獨古 物이었던 音樂은 차차信仰의 祭儀에서 벗어나 흑은 무俗으로 흑은民俗音樂으로 發展하였으며 부처님에게는 말씀이었고 그소리만 들어도得悟의見地에이르고 其音樂思 音即 佛音이요 法音으로서 方法으로 作用하는 것이 佛敎의 音樂이 아니라 할수 없다。

2、梵唄의 由來

범패의起源은 妙音보살의 所作이라고도하고 中國魏나라 曹植이 연못에 고기떼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것을 듣고 지었다고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범패가 들어온것은 河東傳燈寺의 眞鑑大師 大空塔 碑文에 『雅善梵唄金玉其音 側飛猿鶴 傾聽者故 云暢妙聲』 等으로 보면 범패는 중은 材料가되겠고 또 佛敎信仰 民俗音樂의 尊像 不可得 唯 同吾人間 樂聽者 칠기한것을 상소한 것을보면 범패의 영향은 그 이전에서 벌써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범패의 起源은 어디서 오늘날 이러한 범패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問題는 아무래나 버리는 신정한 문제이나 이것을 밝히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만 앞으로 계획중이니 장래에서 볼 때 우리의 樂譜이 그런 수준에 못이를것 같아요。

▲李東=전문서적에 대한 독서는 어느정도 돼있지 않읍니가? 정도를 낮춘일반 서적이 문제지요。요는 너무 새것만을 찾지말아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독서도 「나이롱」같은 존재는 오래안 가니다。최선달의 유행품을 읽는것 보다는 역시 古典을 읽는것이 뼈대가 될 思想體系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읍니다。

▲朴=哲學이 萬學의 근원이라하지만 철학서적은 너무 觀念的이고 남해하여 읽어 나가기가 어려워요。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철학적 소설을 읽으면 철학과 문학을 모두 알게 되는게 되지않을까 합니다。

▲洪=우리가 반성해야할것은 너무 재미만찾거나 즉시 이익을 거둘것을 기대해서는 곤난해요。독서는 조급히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을 려리해야 해요。역시 오랜 세기동안 인류가끝나 가장 믿음성이 있다고봅니다。

▲趙=가을이 제일 아닙니까?

▲李東=일년중、사람의 一生中、그리고하루에서는 또 언제가 제일일까요。

▲司會=一生을 통한시기는 어디 조관장님!

▲趙=젊을때、야망이있었을때가 제일이지요。

▲李東=요는 일생일년하루를 통해서나 있고 싶을때이지요。

▲洪=역시 기억력이좋은 어린때에 영롱의 전기를 읽어야할것같아요 관장 잘알겠어요。

▲趙=가을이 제일 아닙니까?

▲李東=일년중、사람의 一生中、그리고하루에서는 또 언제가 제일일까요。

▲司會=一生을 통한시기는 어디 조관장님!

▲趙=젊을때、야망이있었을때가 제일이지요。

▲李東=그말은 타당치않아요。마치 쓰고남는 돈을 저금하는 생각이나 갚지않을까요?남는시간에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洪=역시 기억력이좋은 어린때에 영롱의 전기를 읽어야할것같아요 관장 잘알겠어요。

▲趙=가을이 제일 아닙니까?

▲李東=일년중、사람의 一生中、그리고하루에서는 또 언제가 제일일까요。

▲司會=一生을 통한시기는 어디 조관장님!

▲趙=젊을때、야망이있었을때가 제일이지요。

▲李東=그말을 타당치않아요。마치 쓰고남는 돈을 저금하는 생각이나 갚지않을까요?남는시간에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洪=그말은 타당치않아요。마치 쓰고남는 돈을 저금하는 생각이나 갚지않을까요?남는시간에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李東=글세요、책이란 신인과 타인의 정신을계승、타인의 장점을 본받기 위한것이 아닐까요、換言하면、시대적 文化를 계승하고 또을 받아、자기의風考를 충실히하는데 의의가있는것이아닐까하는데요。

▲千=요는 他人의 지식、경험이란 독서로 섭취할수 없다는거지요?

▲洪=독서의 필요성이란 너무상식화되고 잘 알려진 문제니 논의 꺼리가못되고、오늘 본 좌담회에서는독서의 태도、대학생활과 독서와의관계를 좀 더상론해봅시다。

▲安=열람이 校內에 만가동하니도서관의책을 충분히읽을수가있겠읍니다。

▲千=좋은말씀입니다만 역시 현학교 실정으로봐서 아직 관의대출은 도서관의 운영상 좀 곤난함겠지요。언젠가 꼭그 실현되기가 오겠지요。

▲朴=요즘대학생들도 많이 공부를하다가 도서관에 가만중 읽는것보다 먼저 아만중 魚丈은 교만하기 짝이없어 교만중이라는 칭호가 있었다。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저하는 교만한 長技는 무엇인가 梵唄의 內容에따라 區分한다면 다음과같다。

①片계聲―계頌 ②唱語聲―致聲―讚頌 ③請文聲―기도 ④回向聲―祝願文 ⑤茶禮聲―(遺囑게頌)―끝년서 창합 ⑥散冰聲―散佛歌 ⑦祝願聲―祝願 ⑧臨終―供養 ⑨頌子聲 等으로 區分한다 이外에 普施食聲 施食聲 等에 區分한다。

이상의 것에 而復 된것이 많다。끝으로 이音曲의 特徵을 말한다면 별로 있어도 拍子가 일정하지 않는點이며 拍子가 없는가운데도 自由로 拍子를 다 춤수있는것이라하겠다。現行民俗音樂의 音曲에서 범패와 비슷한點을 찾는다면 歌曲과 보령이라고 볼수있으며 범패의 영향을 받은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소리는 잘하는 명창일지라도 佛敎的인 素材이 없는사람은 범패를 부를수없다는것이 또한 그特徵이라하겠다。(글쓴이・國樂藝術學校敎師)

緊急・절실한 課題는 책구입 講義보다 讀書가 더욱重要

"讀書는 偉人의 素材"

▲司會=그러면 다음이 문제、즉 독서에는 언제가 어떻게해서는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趙=가을이 제일 아닙니까?

▲李東=일년중、사람의 一生中、그리고하루에서는 또 언제가 제일일까요。

▲司會=一生을 통한시기는 어디 조관장님!

▲趙=젊을때、야망이있었을때가 제일이지요。

▲李東=그말은 타당치않아요。마치 쓰고남는 돈을 저금하는 생각이나 갚지않을까요?남는시간에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洪=역시 기억력이좋은 어린때에 영롱의 전기를 읽어야할것같아요 관장 잘알겠어요。

▲朴=저희는 다독을해야할지 사간에 시험공부를 해야했고、강수성에민감思春期를 영어 수학을 공부 하느라 책에대한 공포감이붙어 버렸지요 책을읽을줄은기회를잃어버린 셈입니다。

▲李東=요는 일생일년하루를 통해서나 있고 싶을때이지요。

▲洪=역시 기억력이좋은 어린때에 영롱의 전기를 읽어야할것같아요 관장 잘알겠어요。

▲朴=저희는 다독을해야할지 사간에 시험공부를 해야했고、강수성에민감思春期를 영어 수학을 공부 하느라 책에대한 공포감이붙어 버렸지요 책을읽을줄은기회를잃어버린 셈입니다。

▲洪=그말은 타당치않아요。마치 쓰고남는 돈을 저금하는 생각이나 갚지않을까요?남는시간에 읽을려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봅

이가을의葉書

金 秉 昌

꼴과 영원 보다는
결드려 있는 것을 사랑하겠읍니다。
아무 한 사람 침범 할수 없는,
내 마음의 오솔길을
머리숙여 散策 하겠읍니다。」

밤 내음, 눈물 내음,
바람난 무모한 가슴자리 마다에
논 물을 대듯 가을을 드리대고。」

돌아와
소문도없는 외톨배기 점승인데
꺼질줄한 얼굴을 바람에씻어버리겠읍니다。

흡연 情이든
敗北와 絶置의 소일랑
차라리 엎드려 듣겠읍니다。」

하아얀 햇 이야기
이제 모두
하이얀 버선 곱게 신켜 나래 태워보내고。
合掌에서 오는 重量같은것—
게절이 잃는
佛經을 들으며

아 아!
이 가을
나는 더 외로운 供饌을 마시하겠읍니다。

〈林學科〉

退任記者의辯

발길을 故鄕으로

영거주춤하게 보낸 40개월

季節이 가기前에 旅程에…

金靜瑗

(無)

아무리 들려보아도 내게 마련된 이 자리는 결 못된 것같은 느낌이 든다。 애초에 발붙쳤던 바 로 이곳의 한 귀퉁이에 불과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애정이 두터워 진다는 그의 애길 듣는 요즘의 나 날 김절 해보는 발견하곤 답치해진다。

(藏書1)

『조금 바빴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게으름의 변명이 들드라도 밥을 먹고 서고싶다。

【藏書2】

『조용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藏書3】

『조용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때 그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藏書4)

『조금 바빴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게으름의 변명이 들드라도 밥을 먹고 서고싶다。

【藏書2】

『조용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때 그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藏書3)